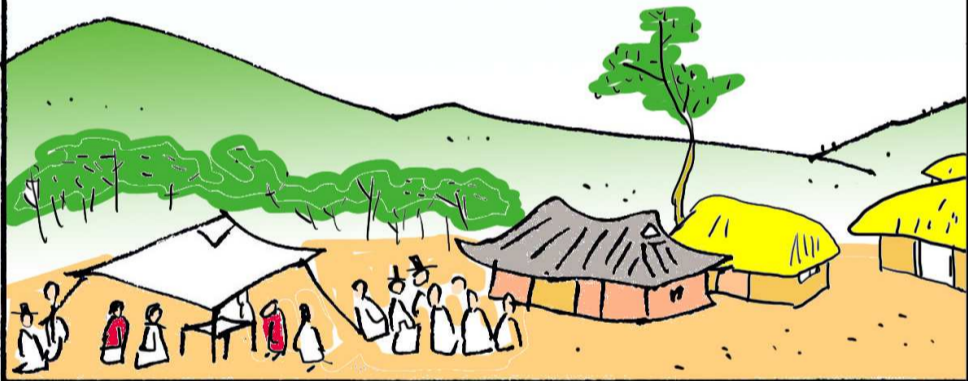


39. 부부간에 지켜야 할 도리(6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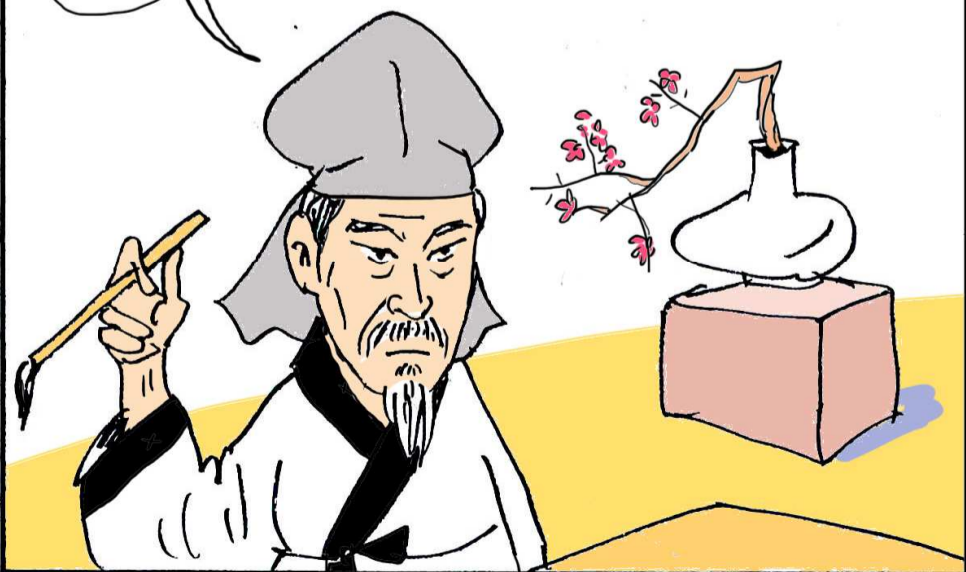
1560년 9월 손자 안도가 혼인했다.



안도의 나이 20세 였다.



세월 참 빠르다. 꼬물꼬물 기어다니던 손자가 벌써 혼인을 치르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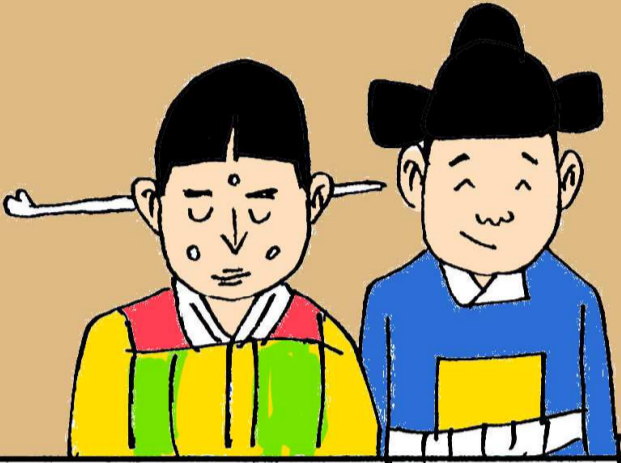


퇴계가 편지를 썼다.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비롯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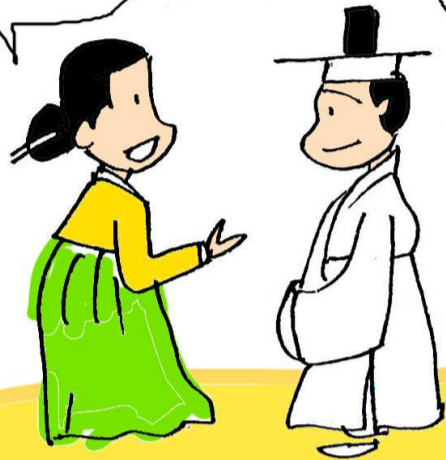
# 道



세상사람들은 부부의 예와 서로 공경할 도리를 모두 잊어 버리고

서방님, 부부일수록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 부인



너무 지나치게 친근하게 지내다가...

자기 없으면 못살아.

우리 자기가 최고야!



마침내 업신 여기고 거만해지고 능멸해 버린다.

남편이 아니라 원수야 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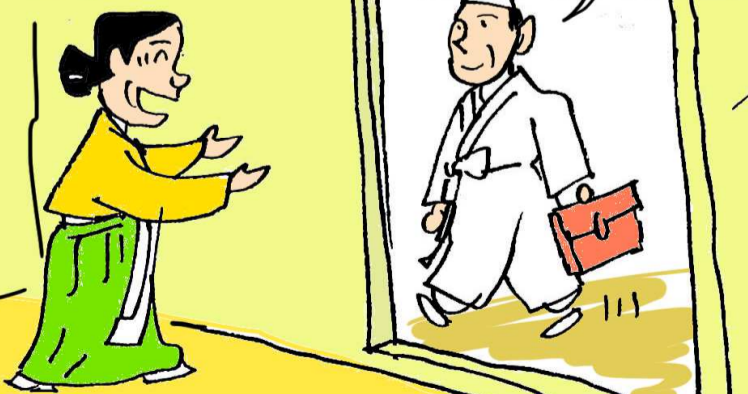
꼴도 보기 싫어!



이것은 모두 상경여빈相敬如賓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서 오세요.

부인, 다녀 왔습니다.



퇴계는 새로이 부부의 연을 맺은 손자에게 편지로 부부의 도리를 설명해 준 것이다.

가까운 사이 일수록 함부로 대하지 말고 손님을 대하듯 예를 다해 대해야 하는 거야.



\*상경여빈 : 부부가 서로 손님을 대하듯이 공경하는 것